

## 국회 토론회

# “통일시대를 대비한 북한 결핵퇴치 방안은?”



34

협회는 김무성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과 함께 5월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통일시대를 대비한 북한결핵 퇴치 방안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북한 결핵퇴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여, 정부, 국회, 대한결핵협회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역할을 분담하고자 마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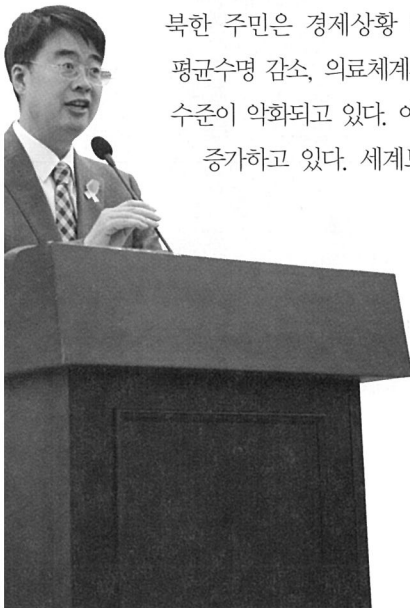
북한 주민은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영양 결핍, 평균수명 감소, 의료체계의 붕괴 등을 겪으며 건강 수준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결핵환자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북한에 매년 약 4천 명의 신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2012년 기준 10만 명 당 511명의 결핵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2012년 기준

북한의 결핵환자는 약 13만 명이며, 매년 약 2만 2천 명의 환자가 결핵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결핵 퇴치가 의료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세계보건기구(WHO)는 보고 있다. 의료체계의 붕괴에 따라 결핵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체계적 관리체제 없이 단순한 결핵 약품의 지원은 다제내성결핵 등을 유발할 우려도 갖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문정림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제1부 주제발표에서는 ▲인요한 대한결핵협회 남북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북한결핵의 대처, 과거와 미래’를, ▲최희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 연구원이 ‘북한의사가 직접 바라본 북한의 결핵실태’를 발제했다.

인요한 위원장은 ‘북한 아이들은 수인성질환으로 죽고, 어른은 결핵으로 죽는다’고 할 정도로 북한에서 결핵은 흔한 질병임을 설명하고, 결핵약을 아끼기 위해 복용 대신, 도관을 통해 환부에 직접 주입하는 북한 결핵치료 실태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특히 가장 시급한 문제가 결핵 배양시설이고, 특히 다제내성결핵 확대를 막기 위한



내성검사실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언급해 앞으로 협회가 북한결핵퇴치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북한에서 의사로 활동한 최희란 연구원은 북한에서는 결핵을 ‘병’으로 진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일터에서 ‘노동 능력’을 감정반기 위한 차원에서 결핵을 치료한다며, 특히 북한에서는 전염성질환을 진료하지 않으며 결핵을 앓는 경우 혼사에 장애 사유가 될 수 있어 숨기는 경우가 많다는 내용을 전달하여, 결핵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태도 및 인식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제2부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에는 ▲김희진 결핵연구원 원장, ▲권준욱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이수영 통일부 교류협력국 국장, ▲이영중 중앙일보 정치부 기자가 참여해 각 분야 전문가의 시각으로 북한의 현실 및 앞으로 방향에 대해 토론을 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김무성 의원은 “대북한 보건의료 분야 지원은 다양한 기관과 단체가 실시하고 있어 불필요한 혼란과 낭비가 없는지 주의 깊게 검토하며 결정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에 참여한 국회와 보건복지부, 통일부 등 관련 정부부처, 대한결핵협회가 역할분담과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대북 결핵퇴치 사업방안을 도출하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정림 의원은 “북한주민에 대한 결핵퇴치 사업은 인도주의적 차원을 넘어, 통일시대를 대비한 한반도 보건환경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협회 정근 회장은 “북한 결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BCG, 결핵약제, 진단 시약 공급 등 물적 공급을 넘어 결핵관리 분야 북한 보건 당국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기술 지원 및 교류, 체계적인 결핵관리 원칙 및 방법 수립, 통일 후 한국의 결핵 관리 체계와 통합 가능한 남북한 결핵 관리방법 표준화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개성에 협회 제 13지부를 설립하여 지속적인 결핵관리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올해 법정기부금단체 지정을 계기로 기금모금사업을 적극 추진, 북한결핵퇴치사업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가 시작되기 전 행사장에서는 사랑의 쌀 홍보대사 위촉식이 진행되었다. 이날 토론회를 함께한 김무성의원, 문정림 의원이 사랑의 쌀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위촉장을 수여받았다. †

